

대학에  
바란다

# 대학과 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이시우 | 한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잠신고등학교장



얼마 전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화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가 대학을 자퇴하고 난 다음에 청강생으로서 서체 강의를 들었고, 그것이 이후에 애플을 경영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당시에 서체 강의실에 들 어간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고, 그것이 이후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잡스는 그것을 단지 자기 인생에 찍힌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했다고 표현 했다. 하지만 그 점은 이후 애플 컴퓨터 제작 과정에서 훌륭한 컴퓨터 서체를 고민하게 하는 뒷받침이 되었고, 그 점은 애플이라는 또

하나의 점과 이어져서 잡스라는 비즈니스 천재를 구성하는 하나의 큰 선이 될 수 있었다.

이후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가 서체 강의를 들었던 것은 요즘의 애플 매니아들 입장에서 천만다행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그가 서체 강의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개안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디자인 하나는 끝내준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아이맥’과 ‘아이팟’, 그리고 ‘아이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잡스는 당시 자신이 서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청강생이라 정규 과정에 얼마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착실한 모범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계속했다면 잡스는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디자인에 대한 재능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왜 공식적인 대학 교육 시스템은 잡스의 재능을 발견해내지 못했을까? 오히려 학생이 그 시스템에서 이탈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대학은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가는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공부가 단순히 지식 전달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잡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학에서의 수학 과정은 자신에게 숨어 있는 재능과 관심을 찾아내는 탐색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좋은 대학이란 학생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충격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통해 학생이 자기 길을 찾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학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재능을 잘 연마한 인재들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학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 창조적이고 유연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요즘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인재는 결국 대학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잡스가 들은 서체 강의도 어쨌든 대학에서 개설한 강의였다. 창조적이고 유연한 인재를 사회에 내놓으려면 대학도 창

조적이고 유연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입학사정관 전형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한 학생 선발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상급학교 입학 지원자에 대해 다수의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잠재 가능성(혹은 발달 가능성)도 중시하는 선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점수 위주의 정량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유연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이 갖는 더욱 큰 의미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인재 선발과 양성 과정에 고교와 대학이 연계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총규모는 2008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약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어느 민간경제연구소는 음성적인 거래가 많은 사교육 시장의 총규모는 실제 약 50조원에 육박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포기가 사교육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집착으로까지 연결되는 교육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집착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 즉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전형, 고등학교 교육활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전형, 고등학교 교사가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인재가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와 일치될 수 있는 전형이 필요한데, 그 전형 유형이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활동을 통해 많은 점들을 찍고, 사정관이 참여하여 그 점들의 의미를 찾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입학사정관 선발 방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활동을 통해 어떤 점들을 찍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사정관들이 지원자들의 고교 시절의 궤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선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물로 남아 있는 서류에만 의존하는 평가 방식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정량적 평가 방식이 가졌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 중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인데도 지원자 자

신도, 대학의 선발관도 모두 다 놓치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의 영향력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선이 어느 지점에서 ‘톡!’하고 안타깝게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고등학교와 대학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그리고 학생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하고 그러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활동과 정과 기록물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연결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이 대입에 충분히 반영되고, 대입전형 설계가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체제 또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스티브 잡스 이상의 거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한 청년이 자라고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서로 소통하고 그 청년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한다면, 대학은 그 대학의 인재상에 걸맞는, 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교-대학 연계란 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의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이 각각의 교육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이 적격자 '선발 기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일본 칸사이 대학은 학교 내에 고교-대학 연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교육위원회와 연계 협력 하에 대학 교수가 고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도, 해당 대학의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 활동을 주로 해서 학생들이 고교 시절을 통해 희망하는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한 전공 탐색 활동으로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될 수 있어 대학이 해당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

가 낮은 교육 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지원 상담 프로그램,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새내기 대학 등)들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고교-대학 연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고교교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모집 요강의 검토 등 고교와 대학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동국대, 경원대 등은 자문교사단의 활동을 통해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을 하고, 다음 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예고와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희대의 '현직교사 참여 사정관제'와 연세대의 '서류평가 준거를 위한 연구 세미나' 등도 고교-대학 연계의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확대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입학사정관 전형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되어 갈 것이며, 우리의 고등학교와 대학도 각각의 위치에서 본연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키울 수 있고, 대학은 이러한 학생을 선발하여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것!, 언뜻 지나쳐

버리고 놓쳐 버릴 수도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감동적인 그림으로 완성하게 하는 일! 우리 대학이 고등학교와 함께 학생들을 위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다.

### 필자소개

이시우 | 한국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잠신고등학교장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성수중, 경기여고, 서울과학고, 경기여고, 삼성고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직을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동부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장학사와 장학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잠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단장,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한국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협력위원직을 맡고 있다.